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단윤진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학계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주자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과 각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논문의 출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연구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여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정호(명도, 1032~1085). 정이(이천, 1033~1107)와 남송시대의 이동(연평, 1093~1163), 주희(회암,1130~1200)까지 총 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시대별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윤리 · 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비평 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로 분류는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정호, 정이와 남송의 이동, 주희까지 총 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유학자의 시대별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소옹에 관한 논문은 총 2편이 있으며 정호에 관한 논문도 2편 있다. 정이에 관한 논문은 박사논문 1편, 일반 논문 1편, 총 2편의 논문이 있으며 이동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총 33편이 있다. 모두 40편의 논문을 조사하였다.

1) 소옹(강절, 1011 - 1077) [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희영	소강절 역수론(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哲學論叢, Vol.81 No. - , .[KCI등재]	새한철학회
2	조희영	『주역』에 내재된 리수(理數)의 함의 - 송대 선천역학자의 관점에서 -	韓國思想과 文化, Vol.77 No. - , .[KCI 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소옹의 논문은 조희영의 논문이 2편으로 상수역학에 관한 논문과 역수론의 구성과 리수의 함의에 관한 논문이다.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5년에는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 정호(명도, 1032 - 1085) [일반논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길수	程明道의 仁說연구	양명학Vol.- No.41,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2	이현선	정호의 철학과 明代 유학의 탈주자학적 경향	양명학Vol.- No.42,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정호에 관한 논문은 박길수와 이현선의 논문이 각각 1편씩 있다. 2014년 3편에서 2015년은 2편으로 줄었다.

3) 정이(이천, 1033 - 1107) [일반논문 1편, 박사학위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호석	程伊川 '理'哲學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15]
2	이정환	程學 전통에서의 格物, 致知, 窮理 - 二程 4대 初傳弟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 -	東洋學, Vol.60 No.-,. [KCI등재]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정이천에 대한 논문은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5년에는 이정환의 일반 논문 1편과 박호석의 박사학위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2편이다.

4) 이동(연평, 1093 - 1163)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승연	이동李侗 공부론의 시대적 함의	한국학논집, Vol.61 No.-, .[KCI등재]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이동에 관한 논문은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5년에는 이승연의 1편의 논문이 나왔다.

5) 주희(회암,1130 - 1200) [일반 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권상우	주자학과 이슬람의 상호문화철학적 접근; 이유전회(以儒詮回), 이회보유(以回補儒), 회유공명(回儒共明)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3,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2	김경수	천인론을 통해 본 최한기와 주희의 보편성 비교	한국학연구, Vol.54 No.-, [KCI등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동서철학연구, Vol.77 No.-, [KCI등재]	한국동서철학 연구회
4	김원희	朱熹與李珥的鬼神祭祀觀	율곡사상연구, Vol.31 No.-, [KCI등재후보]	율곡연구원
5	김정신	주희(朱熹)의 소목론(昭穆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大東文化研究, Vol.92 No.-, [KCI등재]	대동문화연구회
6	김정신	주희(朱熹)의 묘수론(廟數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동방학지, Vol.172 No.-, [KCI등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	노영실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	道德敎育研究, Vol.27 No.2, [KCI등재]	한국도덕교육학회
8	박동인	朱熹의 自我觀과 生死觀	동양철학, Vol.44 No.-, [KCI등재후보]	동양철학회
9	방현주	주희의 태극 형이상학과 그 전승	[국내박사]	건국대학교대학원,[2015]
10	변희욱	대혜(大慧)의 간화(看話)와 주희의 격물(格物)의 철학적 차이	한국선학, Vol.42 No.-, [KCI등재]	한국선학회
11	성현창	朱熹의 顔回이해	哲學論叢, Vol.82 No.-, [KCI등재]	새한철학회
12	소진형	주희(朱熹)의 극(極) 해석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韓國政治研究, Vol.24 No.3, [KCI등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 연구소
13	신명종	주자(朱子)와 다산(茶山)의 서법(筮法)에 대한 비교(比較) 연구	退溪學報, Vol.138 No.-, [KCI등재]	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4	신정근	중국철학: 朱子(주자)의 仁(인)과 知(지)관계에 대한 해법– "멍청한 仁者(인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Vol.81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15	안영석	주자와 양명의 도덕교육론 연구	儒學硏究, Vol.32 No.–, .[KCI등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연재흠	주희 독서론 연구	中國學報, Vol.72 No.–, .[KCI등재]	한국중국학회
17	이상돈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	한국 철학논집, Vol.44 No.–, .[KCI등재]	한국철학사 연구회
18	이승연	주자 교육 사상의 현대적 독해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1,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19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지(智)=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孔子學, Vol.29 No.–, .[KCI등재]	한국공자학회
20	이정상, 김종두	양생(養生)에서의 호흡법 고찰 – 태식법(胎息法)과 朱子의 "조식잠(調息箴)" 수용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Vol.79 No.–, .[KCI등재]	한국사상 문화학회
21	이천승	주자의 인설(仁說)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규범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22	이치억	송대 성리학자들의 인仁사상에 관한 소고	국학연구, Vol.28 No.–, .[KCI등재]	한국국학진흥원
23	임병식	주자는 어떻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했는가?	동양철학, Vol.43 No.–, .[KCI등재후보]	동양철학회
24	전병욱	"혈구지도(絜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25	정상봉	〈천리(天理)의 함의: 주자의 천리관(天理觀) 재해석〉(楊利華敎授)를 읽고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Vol.2015 No.10, [2015]	한중인문학포럼
26	정영근	주희의 직업사상 = ZhuXi's Thoughts on Occupation	韓國思想과 文化, Vol.80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27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7 No.–, .[KCI등재]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8	진형준	이원론과 일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주자학의 이원론 비교 = Resume : Unicisme et dualisme	佛語佛文學硏究, Vol.101 No.–, .[KCI등재]	한국불어불문학회
29	한상인	교육적 인간상으로서의 군자(君子) 연구: 주희의 "군자시중(君子時中)"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Vol.37 No.1, .[KCI등재]	한국교육철학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0	한승일	인식 주체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 주희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50 No.–, .[KCI등재]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1	한자경	미발지각(未發知覺)이란 무엇인가? = 未發知觉意味研究 兼论目前韩国关于'未发'的争论論	哲學, Vol.123 No.–, .[KCI등재]	한국철학회
32	황인석	주희의 자연주의적 도덕관 검토	사회과학교육, Vol.18 No.–, .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33	황지원	『맹자』에 대한 漢代 訓詁學과 宋代 朱子學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	동아인문학, Vol.31 No.–, .[KCI등재]	동아인문학회

주희에 대한 논문은 총 33편으로 그 중 일반 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 있다. 주희에 대한 논문은 한국 학계에서 발표된 중국 성리학 논문 중 그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만큼 다른 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다. 주제도 다양하여 경학, 역학, 경세론, 이기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 되어있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윤리 수양론 부분이며 인식론 경학 이기론등의 논문이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다. 특히 주희와 다른 대상과의 비교 논문에서는 불교와 주희 비교, 왕양명과의 비교, 조선유학자와의 비교 뿐 만아니라 서구의 이원론과 정치철학, 심지어는 이슬람과도 상호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여 비교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주희의 생사관이나 직업관 등 기존의 논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주제를 다룬 참신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그 뿐 만 아니라 주희에 대한 매우 다양한 주제의 신선한 논문들이 게제 되어 새로운 각도에서 주희를 조망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윤리 · 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39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역학, 예학] 5편, 이기론 4편, 윤리 · 수양론 13편, 인식론 7편, 비교 5편, 기타 5편이다.

많은 논문들이 제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현대 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1) 경학[역학, 예학](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정신	주희(朱熹)의 소목론(昭穆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大東文化硏究, Vol.92 No.-, .[KCI등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	김정신	주희(朱熹)의 묘수론(廟數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동방학지, Vol.172 No.-, .[KCI등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	조희영	소강절 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哲學論叢, Vol.81 No.-, .[KCI등재]	새한철학회
4	조희영	『주역』에 내재된 理數의 함의 - 송대 선천역학자의 관점에서 -	韓國思想과 文化, Vol.77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5	황지원	『맹자』에 대한 漢代 訓詁學과 宋代 朱子學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	동아인문학, Vol.31 No.-, .[KCI등재]	동아인문학회

경학에 관한 논문은 역학과 예학 부분으로 나누었다. 예학 부분에서는 김정신의 「주희(朱熹)의 소목론(昭穆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

(改革論)」과 「주희(朱熹)의 묘수론(廟數論)과 종묘제(宗廟制) 개혁론(改革論)」 등 2편이 있으며 역학 부분에서는 조희영의 「소강절 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와 「『주역』에 내재된 理數의 함의 - 송대 선천역학자의 관점에서 - 」 2편이 있고 황지원의 「『맹자』에 대한 漢代 訓詁學과 宋代 朱子學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라는 맹자 관련 논문이 1편 있다.

2) 이기론(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호석	程伊川 '理'哲學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研究	[국내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2015]
2	소진형	주희(朱熹)의 극(極) 해석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韓國 政治 研究, Vol.24 No.3, .[KCI등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 연구소
3	방현주	주희의 태극 형이상학과 그 전승	[국내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2015]
4	정상봉	〈천리(天理)의 함의: 주자의 천리관(天理觀) 재해석〉(楊利華教授)를 읽고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Vol.2015 No.10, [2015]	한중인문학포럼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총 4편로 정상봉의 「천리의 함의; 주자의 천리관 재해석(양이화 교수를 읽고)」와 방현주의 「주희의 태극 형이상학과 그 전승」, 소진형의 「주희의 극 해석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호석의 「정이천 '리'철학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3) 윤리 · 수양론(1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승연	이동李侗 공부론의 시대적 함의	한국학논집, Vol.61 No.–, .[KCI등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	전병욱	“혈구지도(絜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3	박길수	程明道의 仁說연구	陽明學, Vol.– No.41,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4	신정근	중국철학 : 朱子의 仁과 知관계에 대한 해법–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Vol.81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5	이천승	주자의 仁說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규범	東洋哲學硏究, Vol.83 No.–, .[KCI등재]	동양철학연구회
6	이종우	맹자의 시비지심, 智=선의 의미: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孔子學, Vol.29 No.–, .[KCI등재]	한국공자학회
7	이치억	송대 성리학자들의 仁사상에 관한 소고	국학연구, Vol.28 No.–, .[KCI등재]	한국국학진흥원
8	박동인	朱熹의 自我觀과 生死觀	동양철학, Vol.44 No.–, .[KCI등재후보]	한국동양철학회
9	연재흠	주희 독서론 연구	中國學報, Vol.72 No.–, .[KCI등재]	한국중국학회
10	이승연	주자 교육 사상의 현대적 독해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1,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11	황인석	주희의 자연주의적 도덕관 검토	사회과학교육, Vol.18 No.–, .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사회교육연구소
12	이정상, 김종두	양생(養生)에서의 호흡법 고찰 – 태식법(胎息法)과 朱子의 "조식잠(調息箴)" 수용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Vol.79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13	임병식	주자는 어떻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했는가?	동양철학, Vol.43 No.–, .[KCI등재후보]	한국동양철학회

윤리 · 수양론은 13편으로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논문으로는 이승연의 「이동 공부론 시대적 함의」와 「주자 교육 사상의 현대적 독해」 등 2편이 있으며 전병욱의 「‘혈구지도’에 대한 해

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 박길수의 「정명도의 인설 연구」, 신정근의 「주자의 인과 지에 대한 해법 - "멍청한 인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천승의 「주자의 인설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 규범」, 이종우의 「맹자의 시비지심, 지=선의 의미;주희와 왕수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치억의 「송대 성리학자들의 인 사상에 관한 소고」, 박동인의 「주희의 자아관과 생사관」, 연재흠의 「주희 독서론 연구」, 황인석의 「주희의 자연주의적 도덕관 검토」, 임병식의 「주자는 어떻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 했는가?」, 이정상과 김종두의 「양생에서의 호흡법 고찰 - 태식법과 주자의 '조식잠'수용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4) 인식론(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정환	程學 전통에서의 格物, 致知, 窮理 –二程 4대 初傳弟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	東洋學, Vol.60 No.–, .[KCI등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	노영실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	道德教育研究, Vol.27 No.2, .[KCI등재]	한국도덕교육학회
3	변희욱	대혜(大慧)의 간화(看話)와 주희의 격물(格物)의 철학적 차이	한국선학, Vol.42 No.–, .[KCI등재]	한국선학회
4	이상돈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	한국 철학논집, Vol.44 No.–, .[KCI등재]	한국철학사 연구회
5	한승일	인식 주체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주희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50 No.–, .[KCI등재]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6	김우형	덕 인식론의 관점에서 본 지(智)와 지각(知覺)의 문제: 성리학에서 지적인 덕에 관한 두 입장의 현대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Vol.75 No.–, .[KCI등재]	한국동서철학 연구회
7	한자경	미발지각(未發知覺)이란 무엇인가? = 未發知觉意味研究 - 兼论目前韩国关于'未发'的争论 -	哲學, Vol.123 No.–, .[KCI등재]	한국철학회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7편이 있다. 주로 격물치지에 관한 논문으로 이정환의 「정학 전통에서의 격물, 치지, 궁리 - 이정 4대 초전제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 변희욱의 「대혜 간화와 주희의 격물의 철학적 차이」, 이상돈의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 한승일의 「인식 주제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주희의 격물치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그리고 지각에 관해서 다룬 논문으로 김우형의 「덕 인식론에서 본 지와 지각의 문제; 성리학에서 지적인 덕에 관한 두 입장의 현대적 해석」, 한자경의 「미발지각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노영실의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가 있다.

5) 비교(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명종	朱子와 茶山의 筮法에 대한 比較 연구	退溪學報, Vol.138 No.-, .[KCI등재]	퇴계학 연구원
2	권상우	주자학과 이슬람의 상호문화철학적 접근; 이유전회(以儒詮回), 이회보유(以回補儒), 회유공명(回儒共明)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3, .[KCI등재]	동양사회사상학회
3	안영석	주자와 양명의 도덕교육론 연구	儒學硏究, Vol.32 No.-, .[KCI등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진형준	이원론과 일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주자학의 이원론 비교	佛語佛文學硏究, Vol.101 No.-, .[KCI등재]	한국불어불문학회
5	김경수	천인론을 통해 본 최한기와 주희의 보편성 비교	한국학연구, Vol.54 No.-, .[KCI등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6	김원희	朱熹與李珥的鬼神祭祀觀	율곡사상연구, Vol.31 No.-, .[KCI등재후보]	율곡연구원

비교 논문으로는 김원희의 「주희와 율곡의 귀신제사관」, 김경수의 「천인론을 통해 본 최한기와 주희의 보편성 비교」, 진형준의 「이원론

과 일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주자학의 이원론 비교」, 안영석의 「주자와 양명의 도덕교육론 연구」, 신명종의 「주자와 다산의 서법에 대한 비교 연구」, 권상우의 「주자학과 이슬람의 상호문화철학적 접근; 이유전회(以儒詮回), 이회보유(以回補儒), 회유공명(回儒共明)을 중심으로 」 등 모두 6편의 논문이 있다.

6) 기타(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성현창	朱熹의 顔回이해	哲學論叢, Vol.82 No.-, .[KCI등재]	새한철학회
2	정영근	주희의 직업사상	韓國思想과 文化, Vol.80 No.-, .[KCI등재]	한국사상문화학회
3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觀書有感〉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7 No.-, .[KCI등재]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4	이현선	정호의 철학과 明代 유학의 탈주자학적 경향	양명학 Vol.- No.42, .[KCI등재]	한국양명학회
5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동서철학연구, Vol.77 No.-, .[KCI등재]	한국동서철학 연구회

기타의 논문으로는 성현창의 「주희의 안회이해」, 정우락의 「주자시의 문화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 〈관서유감〉을 중심으로」, 이현선의 「정호의 철학과 명대 유학의 탈주자학적 경향」, 김세정의 「주희의 철학 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등 모두 5편의 논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1) 주요 논문

1) 전병욱은 「"혈구지도(絜矩之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공동체 윤리」에서 주자는 絜矩之道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하나의 해석은 "남의 마음을 가늠할 때 공평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남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남도 나와 같이 공정한 몫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두 입장은 모두 타당한 논거를 가지며 "平天下"章의 전체적인 논지에도 합당하다. 결국 絜矩之道는 위의 두 해석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남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가늠할 때는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는 그에게 정당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도 나와 같이 공정한 몫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 絜矩之道의 의미이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임무는 이 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전병욱은 말한다. 이 絜矩之道는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규범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治國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로소 요구되는 것이 이 絜矩之道이다. 治國이 이루어진 상황이란, 위정자가 가정 내에서 행하는 도덕적 실천에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그들 자신도 가정 내에서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남의 마음'이란 가정 내에서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 마음을 가리키며, '나의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위정자 자신의 마음이다. 『大學』 傳9章에서 쓰인 '恕'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治國을 이룰 수 있는 위정자의 내면적 조건으로서, 스스로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렇듯 위정자가 '恕'를 통해 治國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絜矩之道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 논문의 두 번째 임무라고 필자는 말한다. 그리고 君子가 絜矩之道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의 도덕적 수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絜矩之道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경제 문제와 인사 문제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나머지 내용이다.

2) 이상돈은 「이일분수론으로 보는 주자의 격물치지설」에서 격물치지의 관건은 理와 知의 이해이며 주자의 理에 대한 이해는 이일분수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이일분수는 사회윤리의 맥락, 월인천강의 의미, 혼연과 찬연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일은 모든 사물에 편재하여 분수리로 드러나며, 미발의 혼연한 전체는 이발의 찬연한 조리로 발현한다. 따라서 거경은 단지 理의 인식을 위한 마음의 준비단계로 축소되지 않으며 즉물궁리는 과학적 지식 탐구와 구별된다. 요컨대, 주자의 격물치지에서 과학적 지식의 산출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돈은 진단한다. 왜냐하면 근대적 과학 지식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로의 전환과 함께 자연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전환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돈의 이러한 견해는 격물치지를 이해하는 현대적 연구 지평이라 할 수 있다.

3) 이정환은 그의 논문 「程學 전통에서의 格物, 致知, 窮理 - 二程 4대 初傳弟子들의 해석과 주자 재해석의 의의」에서 이 논문은 程明道와 程

伊川의 4대 初傳弟子로 불리우는 呂大臨, 楊時, 謝良佐,游酢의 格物, 致知, 窮理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程學의 전통 내에서 朱熹의 格物致知說의 '혁명적 전환'이라는 의의를 새로이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주희가 『大學』의 경전적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격물치지에 대한 부분이 逸失되었다는 가정 하에 「格物補亡章」을 경전 안에 삽입하면서, 스스로 이 해석이 二程의 격물치지에 대한 언급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학문의 연속성이란 관점에서, 이정에게서 직접 사사를 받은 이정의 4대 초전제자들은 어떻게 격물궁리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주자의 해석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이 논문은 여러 문헌에 산재하여 있는 二程의 4대 초전제자들의 格物, 致知, 窮理에 대한 해석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록 그 엄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해석은 그 근본적인 취지와 이론적 바탕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즉, 4대 초전제자들의 해석은 모두 "단일한 이치(一理)"와 "合內外之道"에 근거하여, 주체의 본성과 마음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이치가 天理에 따라 외부 대상에게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오는 것을 순수하게 '내향적'으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格物, 致知, 窮理를 해석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이 이정의 어록에도 확인된다. 주희는 이러한 철저한 내향적인 경향에 대항하여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을 격물치지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가 경전의 독서와 같은 유가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을 二程의 학문적 전통 안에서 재확립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의도에서 格物, 致知, 窮理에 대한 재해석을 제시하였다고 이정환은 말한다.

4) 이천승은 「주자의 인설(仁說)을 통해 본 자연에 기초한 도덕규범」에서 "도덕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로 대표되는 유학의 덕목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좋은 삶을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되거나 여타의 덕목을 넘어선 배타적 중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출발한다.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인지되었던 주자학에서의 인(仁)에 관한 이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천승은 착안한다. 주자의 인에 관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은 본체와 연관된 성리학적 토대 및 유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을 자연성에 기초한 도덕적 본성의 성찰이란 측면에서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로 정의한 것은 인간의 본성, 즉 인성에 대한 주자학적 견해를 대표한다. 특히 원형이정이라는 자연계의 변화양상처럼 사람의 덕성도 자연이 부여한 생명력의 자연스런 발현이라는 사유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만물을 낳는 자연계의 역동적 생명성은 인간에게 있어 타자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원초적 감정이었다. 이를 통해 천지와 소통할 수 있는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본질적 힘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 자연성은 원형이형을 인의예지로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명시화되면서, 주자는 "원형이정은 천도의 일정함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의 강령이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인간이 지향해야 될 덕성으로 인의예지를 구체화시켰다. 또한 주자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도덕 감정과 그 이치로서 일상에서 본체와 연계된 인의 정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감정과 본성의 연계성과 차이점을 통해 행위의 보편타당한 도덕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정초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유는 일상의 도덕화를 지향하는 유학의 심층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덕

성의 함양을 위한 공부를 지향하도록 촉구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자연성에 기초하여 일상의 도덕화를 지향했던 주자학에서 인의예지로 대표되는 유학의 덕목은 도덕적 강제나 사회적 유용의 측면을 넘어선 내재적 본성의 자연스런 발현이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몇 편의 논문을 정리해 보았는데 각각의 문제의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주장을 논증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

2) 논문 비평

1) 노영실의 「주희 귀신론의 관점에서 본 지행의 괴리 문제」는 매우 문제가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자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채, 교육학계의 특정한 그룹의 왜곡된 주자학설을 기반으로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리를 '논리적 원인'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주자학에서 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실질적 존재 근거이자 운동의 主宰者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 논문의 황당함은 "귀신은 '리'의 대행자이자 인간존재가 리에 합치하도록 이끄는 세력으로 작용한다"라는 주장에 이어 "귀신은 기의 대행자이며" "귀신은 리를 그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의인화한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극치에 이른다. 주자학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일단 괄호 안에 넣어둔다고 해도, 이 글이 과연 논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2) 한승일의 「인식 주체로서의 감정에 관한 연구 : 주희의 格物致知를 중심으로」도 주자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작

성된 논문이다. 우선 필자는 한자어 '情'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필자는 '정'을 '감정'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無情者'라는 구절이 나오는 『대학』4장에 대하여 "아무리 정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백성의 뜻을 두려워하는 정이 있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때의 '정'은 '두려워하는 정'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실정' '실재의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논문은 제목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자학에서 '性發爲情'의 '정'은 마음의 작용 전체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과 같은 '감정', '사양지심'과 같은 '의지', '시비지심'과 같이 시비선악을 판단하는 지적인 '이성'[1]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 인식은 주로 지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감정이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떻게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 '卽物而窮其理'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주자 「중용서」의 '혹생혹원'에 대하여 "심의 소종래에 따른 지각, 즉 생각하기에 따라 심을 인심과 도심으로 한 구분이다. 〈중략〉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나의 심이 성명의 바름에서 나온 줄 알면 인심이더라고 도심과 다르지 않지만"이라는 주장을 읽어보면 필자가 주자학의 기본 개념과 기초이론에 대하여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또한 "앎의 궁극은 격물이다"라는 주장에 이르면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격물치지'의 기초적인 의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致知在格物'이라는 경문이 보여주듯이 '격물'은 '앎을 이루는[致知]'의 방법이다.

1 이 때의 이성은 주로 윤리적 판단을 하는 도덕적 이성을 말한다.

그 이외에도 논문 곳곳에 논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산재해 있으며, 치지의 내용으로 '이기불리부잡'에 대한 개론적 수준의 설명을 늘어놓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道心是知覺道理底"를 "도심은 도리의 바닦을 아는 것이요"라고 오역한 것은 이 논문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3) 신정근은 그의 논문 「주자의 仁과 知관계에 대한 해법 -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멍청한 仁者"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의식으로 논문을 출발한다. 필자는 "仁者가 어떻게 오류의 가능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탐구해 그에 대한 해답을 『논어』 「雍也」 24에 보면 仁者(君子)에 대해 "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라는 문장에서 찾고자 하였다. 비록 仁者가 완전한 인격을 갖춘 도덕적 영웅이더라도 仁者가 '不可罔'이지만 '可欺'가 되풀이 된다면 멍청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즉 仁者는 영웅이지만 역설적으로 멍청한 인물이다. "멍청한 仁者"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그 문제의 해답을 孔子는 仁과 知를 결합시켜서, 孟子는 性안에 惻隱之心과 是非之心을 포함시켜서, 荀子는 性밖에 비교 판단하는 知를 두어서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풀고자 했다고 한다. 한 제국의 董仲舒도 仁知의 결합만이 '멍청한 仁者'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에 의하면 朱子는 「雍也」 24의 주석을 달면서 仁者가 오류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仁과 知사이에 묘한 긴장이 형성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주자가 '멍청한 仁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 살피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感情에

대한 인지주의와 수정된 인지주의의 논의를 끌어들여서 논점을 정확하게 전개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5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주자학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주요논문을 정리하고 비평하였다. 2014년에는 모든 학위논문을 조사에 포함시켰지만 2015년은 석사논문은 제외하고 박사논문과 일반 학회지(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논문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인물별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정호, 정이와 남송의 이동, 주희까지 총 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 하였다. 인물별 논문은 일반논문 38편, 박사학위논문 2편(주희 1편, 정이 1편)으로 총 40편이다. 소옹, 정호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이 각각 2편씩 있다. 정이에 관한 논문은 박사논문 1편, 일반 논문 1편 등 총 2편의 논문이 있다. 이동에 관한 논문은 일반 논문 1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 32편, 박사학위논문 1편으로 총 33편이 있다. 주희의 논문은 다른 인물들의 논문을 모두 합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을 2014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4년에는 보이지 않던 소옹과 정이에 대한 논문이 2015년에는 새롭게 생겼지만 2014년에 있었던

주돈이, 사량좌, 호굉, 진덕수 등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2014년에는 총 49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인물별로 분류하여 보면 주돈이 3편, 장재 3편, 정호 3편, 사량좌 1편, 호굉 2편, 주희 36편, 진덕수 1편 이었다. 석 · 박사 논문은 총 8편(박사 3편, 석사 5편)인데 그 중 6편(박사 2편, 석사 4편)이 주희에 관한 논문이었다.

주희의 철학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에 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주희의 사상적 기초인 북송 성리학의 연구는 필요하다. 대부분의 논문이 주희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 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윤리수양론, 4)인식론, 5)비교, 6)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15년 1년 동안 중국 주자학 관련 논문은 40편이 발표되었는데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역학, 예학] 5편, 이기론 4편, 윤리 · 수양론 13편, 인식론 7편, 비교 6편, 기타 5편이다. 2014년에는 윤리 · 수양론이 16편, 이기 · 심성론이 12편, 경학 7편, 정치 사회 6편, 예학 3편, 기타 5편이었다. 주제별 분류에서 보자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윤리 · 수양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몇 편의 주요 논문을 소개하고 분석 비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물별 분류에서는 주희에 대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윤리 · 수양론 부분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독특한 현상이며

또한 커다란 연구 업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보다 더욱 수준 높은 중국주자학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주자학 관련 학자들을 발굴하고 또한 현대 한국사회와 접목된 주자학의 다양한 주제들로 보다 심도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주자학의 현재적 재해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일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은 한국 학계에 새로운 공헌이 될 것을 확신한다.